

21세기 문화와 개혁 신앙: 플라톤의 동굴 비유

신 국 원

(총신대/기독교 철학)

기독교는 지적 노력에 의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 구원을 모색하는 사변적인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앎과 순종적 믿음에 근거한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역사적이며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매우 사변인 헬라 문화의 그 문화의 핵심 헬라철학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즉, 기독교가 헬라 철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된 것은 선택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기독교는 헬라 철학이 이끄는 문화 속에서 그 진리를 펼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자연히 철학과 관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 이경직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터툴리안(Tertullian)과 같은 사람은 이 관계를 차단하려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터툴리안 자신은 고도의 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학의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면 철학의 위험성에 대해 그토록 심각히 우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가히 역설적이다.

기독교가 사변적인 헬라-로마 문화와 접하게 될 때에 주로 두 가지 이유에서 철학과 불가피한 접촉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첫째, 복음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교회를 옹호하는 변증과 둘째, 그 문화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도를 수행하기 위해 그 문화의 핵심 헬라 철학을 도의시할 수 없었다. 특히 철학에 젖은 문화 속에서 복음이 비논리적이거나 무논리한 것으로 제시되는 것을 주저하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초대 교회의 지도자이던 교부와 특히 변증가들은 헬라철학과 접촉했다. 물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와 전략이 동일했던 것은 아니다. 철학의 위험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려했던 터툴리안과 달리 클레멘트나 오리겐은 철학을 신앙에 유용한 디딤돌로 보기도 했던 것이다.

이경직 교수의 논문 “21세기 문화와 개혁 신앙: 플라톤의 동굴 비유”는 이러한 역사를 잘 이해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 논문은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의

이런 긴장이 단지 과거 역사 속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님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 플라톤 철학이 오늘날 기독교적 사유와 실천에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성하려고 시도한다. 특히 이 논문의 장점은 이 교수가 자신의 전공인 고대 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인 플라톤의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독교 진리와 어떤 유사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 주려고 시도했다는 데 있다.

이 논문은 왜 초대 교회 교부들 가운데 어거스틴 같은 이들이 플라톤에 대한 편애에 가까운 관심을 보였는지를 알게 해 준다. 그것은 논문이 잘 보여준 바와 같이 플라톤에게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과 적어도 외형상으로 흡사한 면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이것을 “기독교의 신앙 경험에서 납득할 만한 구조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표현했다. (1쪽) 나아가 플라톤에게는 물론 그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의 표현에 “기독교의 진리와 양립”할 수 있는 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2쪽) 이 교수는 이러한 전제하에 특히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자신의 기대에 따라 플라톤에게서 보여진 내용과 기독교적 진리를 비교하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선교나 교육 등의 실천적인 면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를 평가하였다.

특히 평자의 생각에는 이 교수가 플라톤의 죽음에 대한 평가와 실천이 이론과 함께 되어야 함을 강조한 플라톤을 이를 구분하여 독립시킨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우월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독교와 비교한 점은 특이했다. 사실 평자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의구심이 있으나 이 교수의 논점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할 위치에 있지 못하며, 단지 그 착상을 평가할 뿐이다. 또 동굴의 세계와 동굴 밖의 세계의 유비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오늘날 미디어로 형성되는 문화와 연관 관계를 주목한 것도 매우 흥미 있는 부분이다. 이 교수는 동굴 밖의 세계, 즉 본질과 현실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뜬과 그 세계로의 나아가고자 하는 열의는 또 다른 설득자인 미디어와의 싸움을 전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영적 싸움이 세계관을 제작, 유포하는 “다른 문화 제작자들과의 싸움”, 즉 문화 전쟁인 것을 보여 준다. (15쪽) 이 주제는 문화를 둘러싼 논의의 일부로 따로 발전시키면 좋은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교수의 관심은 단지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과거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가들이 그러했거나 특히 고대 철학을 전공하는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헬라 철학의 근원에 위치한 플라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이 교수는 이 논문을 통해서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향후 기독교 철학 작업을 일구어갈 모델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대표적인 텍스트

를 놓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주의 깊게 분석하며 씩씩하려고 애쓰는 자세는 중요하다. 이는 단지 이 교수 뿐 아니라 오늘의 모든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철학은 아직 원론적 이론을 소개하여 기반을 다지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처럼 구체적인 텍스트를 분석하며 기독교적 사유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작업은 매우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생각되어야 할 것은 어떤 자세로 텍스트를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교수는 플라톤의 텍스트를 성경의 텍스트와 단선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즉, 일종의 병립적 방법, 또는 대립적 방법이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소위 도예베르트나 반틸이 보여 준 “초월적 비판(transcendental critique)” 또는 “전제에 입각한 비판(presuppositional critique)”의 방식이 아닐까 한다. 물론 이 교수의 비판도 여러 부분에서 그 종교성에 대한 반성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미 병립과 대립의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킨 바 있다. 예를 들어 병립은 비판이 약한 종합으로 나아갈 수 있고, 대립은 이 교수가 논문 초두에 지적한 것처럼 불신 세계와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초월적 비판은 변혁적 비판과 수용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세는 개혁주의 신앙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 철학자에게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탈취(spoliation)”의 방법을 썼던 어거스틴의 경우, 플라톤에 대한 지나친 평가에 떨어졌던 것처럼 자칫 고전에 대한 평가에 있어 형식적, 외형적 유사성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본질적 차이를 과소 평가할 위험이 있다. 한 우화의 표현처럼 기독교인들이 헬라 철학을 비롯해 철학에 접근할 때 “고슴도치”의 사랑처럼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교수의 접근에는 다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한다.

고전적 텍스트에 대한 성실한 분석을 토대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려는 이 교수의 노력은 오늘날 기독교 철학자들의 과제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흔히 기독교 신학과 철학은 현대 철학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추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교수가 잘 보여 준 바와 같이 이미 플라톤의 텍스트 속에도 오늘날 우리들이 씩씩해야 하는 교육의 문제나 미디어 문화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음은 잊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 교수의 논문처럼 이들 텍스트에 대한 주의 깊은 이해와 더불어 과연 초대 교회 지도자들은 이 텍스트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 또는 극복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앞으로 이 교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태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들에게 커다란 타산지석의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